

제주 1%의 한계?... 기부는 달랐다

■ 코로나19 팬데믹 시국 제주 아너 소사이어티

1억원 이상 기부·약정 제주회원 지난해말 기준 126명
전국 비중 5%대... “나눔,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 빛나”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도 제주에선 기부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제주 회원 숫자가 지난 연말 120명대를 돌파해 회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1%에 달할 정도다. 인구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의 1%라는 제주가 기부에서만큼은 1%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독 힘들었던 2021년 아너 소사이어티의 시작은 지난 5월 18일 홍성호(주)천제 대표가 끊었다. 이어 ▷양은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명예회장 ▷양영은 제주지오영 대표 ▷이

진숙 한라산CC 레스토랑 살레 대표 ▷이유순 푸주옥 도남·오라점 대표 ▷김경란(주)제주사랑센터 대표 ▷김형철 대명콘크리트 대표 ▷권영완 천지자원 대표 ▷고승암(주)요석산업 회장 ▷양정인(주)요석산업·(주)요석드림 대표 ▷김경호 동남기업(주) 대표 ▷양영순(주)서부자원 대표 등 모두 14명이 새롭게 가입했다. 이진숙 대표는 기존 1억원 기부(2016년)에 이어 지난해 추가로 1억원 기부를 약속하며 ‘더블 아너’가 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회에 1억원 이상



지난해 11월 17일 제주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너 주간 및 제주아너소사이어티클럽 총회'.

기부하거나 5년간 1억원 기부를 약정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아너 소사이어티를 2007년 12월 설립했다.

제주에선 2009년 12월 강지연 연강병원 이사장(지난해 10월 31일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10대 회장 취임)이 1호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26명이 가입했다. 126명이라는 숫자는 전국 17개 시·도(중앙 제외) 아너 2452명

중 5.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북과 충북의 2배에 가깝고 충남과 울산, 강원, 세종보다 많다. 강지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나선 아너 회원들의 아름다운 나눔이 더욱 빛났던 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명예로운 나눔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해양경찰청 총경 인사

제주해경서장에 박상욱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총경 50명에 대한 인사발령에 따른 제주지역 편입 명단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주해양경찰서장에 임명된 박상욱(사진) 총경은 1999년 간부후보 47기로 해경에 입문했으며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장, 남해지방청 경비과장, 서해지방청 경비과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을 역임했다.

전임 조운만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은 인사 명단=▷제주해양경찰서장 박상욱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 하태영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김진영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김시범 ▷서귀포해양경찰서 5002함장 고성림. 김도영기자



성산에서 바라 본 한라산 새해 첫날인 1일 서귀포시 성산을 성산리에서 바라 본 한라산 만설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강희만기자

17년간 임야 무단 전용 60대 징역형 집유

20년 가까이 임야를 무단으로 전용해 온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1200만원의 벌금도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소재 임야에서 무단으로 자생식물을 제거한 후 석재가공업에 사용되는 암석을 적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암석 말고도 자신이 사용하는 건설 장비까지 보관했다.

송은범기자

작년 제주찾은 관광객 1201만명

전년보다 17% 가량 늘어
“코로나로 해외행 막히자
제주로 관광객 발길 몰려”

코로나19로 관광업계 대부분 치명타를 맞았지만 2021년 한 해 12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2월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누적 관광객은 1201만 3000여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전년인 2020년 한해 1023만6000여명보다 17%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길이 막히자 국내 관광객이 제주로 몰린 데다,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으면서 제주 관광산업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지난해 입도객 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4월부터 상춘객이 몰리며

한 달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기 시작했다. 월별로 보면 4월(108만2000명)과 5월(113만6000명), 6월(113만8000명), 7월(113만1000명), 10월(122만2000명), 11월(120만4000명) 등 월 100만명 이상 제주를 찾았다. 12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면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하루 평균 3만명에 머물렀다.

하지만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3만6000여명으로 시작해 29일 3만8000여명, 30일 4만1000여명, 31일 4만1000여명 등 하루 평균 4만명 가까이 제주를 찾으면서 지난주말 도내 해돋이 명소, 관광지 등지에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더불어 눈이 쌓인 한라산을 찾는 산악인 등도 지속적으로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당분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 수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태훈기자

제주칼호텔 부지 주상복합 들어서나

시민단체 “한진, 687억에 매각... 도민의견 무시”

제주참여환경연대와 민주노총제주본부 등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이뤄진 ‘제주칼호텔 매각 중단’을 위한 도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도민 무시하고 제주칼호텔 매각 의결한 한진그룹에 대한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지난달 23일 한진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제주칼호텔 매각을 의결했다고 한다”며 “매각대금은 687억원이고, 예상대로 매각 후 주상복합시설을 지을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수 많은 도민들의 매각 반대 요구를 강그리 무시한 처사”라며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9월부터 도민사회에서는 고용보장 없는 매각을 중단하고, 한진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도 한 목소리로 매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도민연대는 “그동안 제주에서 누려온 혜택을 제주도민 대량해고로 되갚는 한진그룹의 감탄고토(甘呑苦吐)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은범기자

재암 장학생 선발 공고

2022년도 재단법인 재암문화재단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25명

2. 선발대상

가. 제주도내 대학생과 등록기준지가 제주도인 타 시도 거주 대학생(1월 1일 현재 대학 재학생. 단, 4학년생은 해당되지 않음)
나. 다른 장학단체 또는 학교, 개인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
다.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자

3. 장학금 지급액 : 1인당 일금 삼백만원정

4. 장학금 지급일 : 2022. 1.28(금)

5. 제출서류 : 장학금 지급신청서(소정양식)

신청서는 본 재단 사무소에서 배부함.
(신청서 양식은 한림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및 팩스로도 받을 수 있음)

6. 제출기간

2022년 1월 5일 ~ 1월 14일

7. 제출처

제주시 신광로1길 40-1(연동) 로얄타운101호 (우63118)
재단법인 재암문화재단 (신제주성당 서쪽150M지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8. 선발통지

2022년 1월 19일까지 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함.

※ 기타 문의사항은 본 재단 T.747-06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

재단법인 재암문화재단
이사장 송용찬



연말연시모두드림 사은행사!!

국내판매중 보청기 전제품 보상판매지원

처음 방문고객 배대리 ₩20,000 → ₩9,000 할인행사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앞치마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자장(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검구이 2층 북동쪽 바닷가 방향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마일 서사리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누출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장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